



광주시가 '2025 광주 방문의 해'를 맞아 야시장, 디지털 정원, 축제 등 광주만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7월 야간 관광명소를 선정했다. 사진은 광주천, 금남로, 무등산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남구 사직공원 전망대. <광주시 제공>

“여름밤 광주 도심 여행으로 무더위 날리세요”

광주시 추천 7월 야간 관광명소

사직공원 전망대-미디어아트거리 빛의숲
대인시장 미식 바캉스·위더락 페스티벌
연극·전시·영화 등 문화 콘텐츠도 풍성

7월 광주의 밤은 예술과 미식으로 어우러진 대인예술야시장부터 무더운 여름밤을 시원하게 물들이 물 축제, 다채로운 공연 등이 펼쳐진다.

광주시는 30일 “2025 광주 방문의 해”를 맞아 시민·관광객 모두가 도심 속에서 여유롭고 특별한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광주의 야간관광 콘텐츠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사직공원 전망대’는 남구 양림산 자락에 위치한 광주의 대표적 야경 명소다. 광주천과 금남로, 무등산을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한다.

전망대에서 이어지는 ‘사직 빛의 숲’은 사직공원 내 산책로 800m 구간을 다양한 미디어아트 작품으로 꾸민 야간 콘텐츠다. 자연 속 감성 체험과 예술적 몰입감을 함께 제공한다.

옛 한국은행 광주지점 부지에 조성된 디지털 정원 ‘금남나비정원’은 광주 도심 속 대표 야경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주간에는 발광다이오드(LED) 조형물인 나비상자와 LED 벤치인 나비쉼터를 볼 수 있고 야간에는 35m 너비의 인공 폭포인 벽천에 프로젝션 맵핑으로 표현한 나비폭포를 즐길 수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하늘마당’도 여름밤 도심 산책 코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다. 넓은 잔디와 감성적인 줄 조명이 어우러져 피

크닉과 야경을 동시에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무등산 자락에 자리한 ‘갯고개 전망대’는 도심에서 차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한 대표적 야경 포인트다.

산수오거리에서 원효사 방향으로 이어지는 오르막길을 따라 오르면 고갯마루에 도착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금남로와 광주천, 무등산 능선을 물론, 광산구 일대까지 탁 트인 도심 전경이 펼쳐진다.

도심 속 산책을 통해 야경을 감상했다면 광주의 여름밤을 생동감 있게 즐길 수 있는 야의 축제도 빼놓을 수 없다.

광주 동구 대인예술시장 일대에서 열리는 ‘대인예술야시장’은 예술과 미식, 체험이 어우러진 광주의 대표 야간 콘텐츠다.

올해는 ‘한여름밤의 미식 바캉스’를 테마로 오는 7월5·12·19일 매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9시30분까지 운영한다.

청년 창작자와 시장 상인들이 협업한 먹거리 부스와 감각적인 푸드 콘텐츠를 비롯해 ‘대인 말차 막걸리’, ‘얼그레이 막걸리’ 등 MZ세대를 겨냥한 이색 메뉴도 선보일 예정이다.

또 흥겨운 음악과 함께 물놀이를 즐기며 더위를 잊을 수 있는 물 축제도 열린다. 오는 7월20일 오후 2시부터 광산구 첨단1동 미관광장 일원에서 ‘제2회 광산 위더락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광산구와 첨단지구 상인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도심형 물 축제 주제는 물총 대전, 키즈 풀, 얼음놀이, 천연맥주존, 플라마켓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메인 무대에서는 DJ와 밴드 공연, 인기 뮤지션의 라이브 무대가 이어지며 지역 상권과 연계한 부대행사도 함께 열린다.

동구 서석초등학교 앞 ‘아이 리브 스트리트’에서는 매주 주말마다 지역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 기업이 참여하는 플라마켓 ‘별별마켓’이 열린다.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요일은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먹거리와 핸드메이드 상품, 체험 부스, 현장 공연 등을 선보인다.

연극, 전시, 영화 등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도 준비돼 있다.

상무지구에 위치한 ‘기분좋은극장’에서는 코미디 연극 ‘툼메이트’가 유쾌한 이야기로 관객들에게 웃음과 공감을 전한다.

ACC는 전시회 야간 개장을 진행한다. ACC 복합2전시관에서는 오는 8월24일까지 ‘애호가’의 편지’가 열리는 가운데 매주 수요일·토요일에는 오후 8시까지 야간 관람할 수 있다.

‘트로트와 도시 소리 풍경’, ‘경계를 넘나드는 아시아 뿡뿡’이라는 2개 주제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트로트와 뿡뿡의 리듬을 통해 도시의 틈새에 스며든 투박한 삶의 흔적을 되짚는다.

오는 7월18일부터는 ACC 복합6전시관에서 ‘ACC 개관 1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뉴욕의 거장들: 잭슨 폴록과 마크 로스코의 친구들’이 개최된다.

뉴욕 유대인박물관이 소장한 약 2천여점 규모의 대표 컬렉션을 국내 최초로 소개한다.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오후 8시까지 야간 관람할 수 있다.

늦은 밤 한적한 드라이브와 함께 여유롭게 영화를 감상하고 싶다면 자동차극장인 ‘광주시내 파파코’도 추천한다.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광주 방문의 해를 맞아 도심 곳곳에서 문화와 휴식이 어우러진 특별한 여름밤 여행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여수·나주·함평산단 84억 투입 환경 개선

전남도, 산자부 공모 선정 국비 확보

전남도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단지 환경조성 3차 공모사업’에 여수·나주·함평 3개 산업단지가 선정돼 국비 8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청년문화센터 건립, 아름다운 산단 거리 조성, 노후 공장 리뉴얼 등 산업단지의 근로·생활·문화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국비 4억원이 투입되는 여수 오천산업단지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은 상근 인력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1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복지시설 개선, 공장 외관 정비, 녹지 환경 조성 등 청년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을 진행한다.

나주 동수오량농공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에는 국비 20억원을 들여 특화 거리 조성, 도로·주차장 정비 등 교통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산단 접근성과 정주 여건 강화를 기대된다.

국비 60억원이 반영된 함평 빛그린국가산단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은 근로자를 위한 휴식, 문화, 체육 기능이 복합된 공간 조성으로 청년층의 생활 기반을 확충하게 된다.

전남도는 3차 공모를 포함해 올해 총 3차례 공모를 통해 총 9개소 사업이 선정돼 국비 212억원을 확보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청년 친화형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창업과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 청년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한국의 장’ 주제 해외 셰프 요리경연 열기

13개 국가 한국 공관에서 예선전 진행

10월 남도미식박람회 13개팀 결선

남도미식과 세계 식문화가 만나는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핵심 프로그램 ‘케이푸드(K-Food) 국제 경연, 글로벌 은둔고수’가 전 세계를 무대로 서막을 올리며 주목받고 있다.

30일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사무국에 따르면 이번 경연 프로그램은 각국에서 활동 중인 셰프가 한국의 식재료와 조리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창의적 요리를 선보이는 국제 요리 경연이다.

예선전은 한식진흥원의 협조를 통해 전 세계 13개 국가 주재 한국 공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나이지리아, 루마니아, 스페인, 홍콩, 페루에서의 예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미국, 아일랜드, 인도네시아, 칠레, 코스타리카, 태국, 튀르키예, 프랑스에서는 예선전을 진행 중이다.

국가별 예선을 통해 선발된 최종 13개 팀은 오는 10월4일 박람회 현장에서 열리는 결선 무대에 올라 ‘한국의 장(醬)’을 주제로 창의적 요리 경연을 펼친다.

참가 셰프는 각 국가의 미식 정체성과 조리 철학을 바탕으로 한국의 전통 발효장을 자신 만

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글로벌 케이푸드 메뉴를 선보일 계획이다.

홍양현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사무국장은 “한식이 세계 각국 셰프와 만나 어떤 창의적 형태로 재해석될지 기대가 크다”며 “국제적 수준의 경연을 통해 케이푸드의 위상을 높이고 남도의 식재료와 미식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촉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도미식의 가치 활용과 산업적 가능성을 바탕으로 승인된 국내 최초 미식테마 국제행사인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오는 10월1일부터 28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펼쳐진다. /양시원 기자

안전한 광주전남



함께 만든 교통안전

교통사고 없는 세상을 위해
운전자와 함께하는 안전벨트 교통안전 캠페인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무사고 당위성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지키면 사고가 안나고
나의 안전과 우리 지역을 위한 최고의 봉사입니다.

※ 안전벨트는 안전거리 준수, 전방주시 유지, 안전벨트 착용하고 운전하는 의미입니다.

교통사고 심각성

- 교통사고 건수**
교통사고 171,475건 발생
- 사망자**
교통사고 사망자 3,877명 발생
(하루 평균 11명 사망)
- 부상자**
교통사고 부상자 272,527명 발생
(부상비율: 158.9%)

※ 광주·전남지역 교통사고 현황 (최근 10년 기준)

무사고 운전 방법

- 안전거리 확보하기**
* 속도별 안전거리
100km/h 주행 시, 100m 이상 차간거리 유지
- 전방주시 유지하기**
전방주시 3초 안 할 경우
100km/h 주행 시,
83.3m 눈길과 주행과 동일
- 안전벨트 착용하기**
광주·전남 최근 10년 간 교통사고 사망자
4명 중 1명 안전벨트 미착용

주관 **TS** 한국교통안전공단

참여기관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주최 **전라남도**
Jeolla Namdo

주최 **광주경찰청**
Gwangju Metropolitan Police Agency

주최 **전라남도경찰청**
Jeonnam Provincial Police

CMYK